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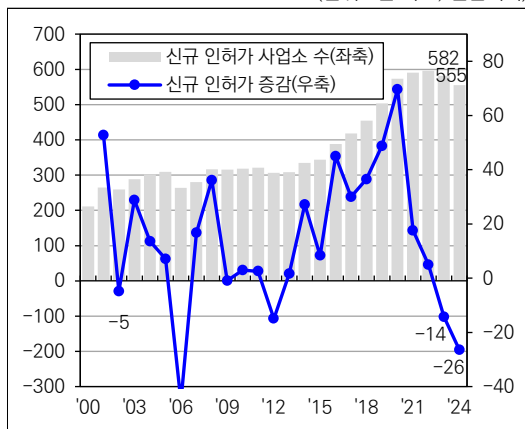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폐업 사업소 현황

- 사업소 인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자영업 폐업의 현황과 변화를 파악하고자 함.
 - －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다방면에서 언급되는 자영업 폐업 증가 현상이 사업소 인허가 자료에서도 확인되는지를 고찰함.
 - － 업종별 폐업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인허가 업소 수가 많은 통신판매업, 일반음식점업, 휴게음식점업의 폐업 추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함.
-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는 국세통계 사업자 수 자료와 포괄범위, 폐업 인지 방식, 시의성에서 차이를 보여 자영업 진출입 분석 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 가능함.
 - － 인허가데이터는 허가·신고·등록이 필요한 195개 업종만을 포함하므로, 전 업종을 포함하는 국세통계와 포괄범위에 차이가 있음.
 - － 국세통계는 세무 목적상 사업자 번호를 유지하는 사례가 포함되어 폐업 누락과 시점 왜곡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인허가데이터는 행정 조치와 실사를 통해 폐업을 확인하므로 정합성 측면에 장점이 있음.
 - － 인허가데이터는 일 단위로 갱신되고 월 단위로 공개되어, 연 단위(2023년 최신)로 제공되는 국세통계에 비해 최근 동향 파악에 유리함.
- 인허가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결과, 최근 신규 인허가 업체 진입은 줄어들고 폐업은 증가하는 추세임.
 - － 2024년 폐업 사업소 수는 40만 2천 개소로, 전년대비 약 10%(4만 1천 개소) 증가함.
 - － 폐업 사업소 수는 2020년 전년대비 감소한 이후 증가 추세임.
 - － 반면, 신규 인허가 사업소 수는 55만 5천 개소로, 약 2만 6천 개소 감소함.
 - － 신규 인허가 사업소 수는 2020년 이후로 증가폭이 둔화되다가 최근 감소 전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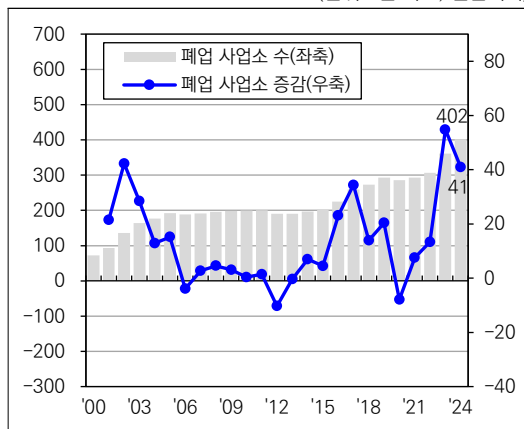
[그림 1] 신규 인허가 사업소 수(좌축) 및 증감(우축) 추이 [그림 2] 폐업 사업소 수(좌축) 및 증감(우축) 추이

(단위: 천 개소, 전년대비)

(단위: 천 개소, 전년대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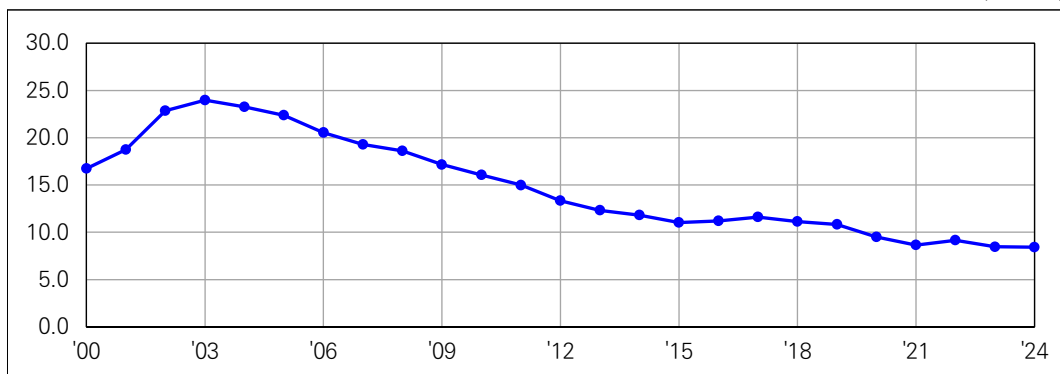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 원자료, 각 연도.

○ 전체 사업소 대비 폐업 사업소의 비율을 나타내는 폐업률은 2003년 이후 감소 추세임.

- 2024년 폐업률은 8.4%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10% 미만을 유지하고 있음.
- 이는 최근 나타난 사업소 신규 진입 감소와 폐업 증가가 전체 폐업률 상승으로까지 이어 지지는 않았음을 의미함.
- 이와 같은 폐업률 수준과 추세는 국세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한 폐업률 추이¹⁾와도 유사한 흐름을 나타냄.

[그림 3] 연도별 사업소 폐업률 추이

(단위: %)



주: 폐업률은 총 사업소(현재 운영 중인 사업소+ 폐업사업소) 대비 폐업 사업소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 원자료, 각 연도.

1) 한국경영자총협회(2024),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참고.

○ 폐업 사업소가 가장 많은 업종²⁾은 통신판매업, 일반음식점업, 휴게음식점업임.

- 통신판매업 사업소 수는 약 150만여 개로 전체 사업소의 31.5%를 차지하며, 사업소 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폐업 사업소 수도 전 업종 중 가장 많음.
- 일반음식점업 사업소 수는 통신판매업의 절반 수준이지만, 폐업 사업소 수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2024년 기준 통신판매업 폐업률은 6.5%로 전 업종 평균(8.4%)보다 낮은 반면, 일반음식점업 폐업률은 9.8%로 평균을 상회함.

〈표 1〉 주요 업종별 폐업 사업소 수 및 폐업률 현황

(단위: 천 개소, 전 업종 대비 비중, %)

	폐업 사업소 수				사업소 폐업률			
	전 업종	통신판매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전 업종	통신판매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2015	201 (100.0)	18 (8.9)	50 (24.7)	14 (7.0)	11.0	6.8	13.0	25.4
2016	225 (100.0)	18 (8.2)	51 (22.9)	16 (7.3)	11.2	5.8	12.6	24.4
2017	259 (100.0)	20 (7.6)	57 (21.9)	19 (7.4)	11.6	5.2	12.8	23.6
2018	273 (100.0)	22 (8.1)	60 (22.0)	21 (7.6)	11.1	4.8	12.6	21.9
2019	293 (100.0)	27 (9.2)	60 (20.3)	22 (7.3)	10.8	4.7	11.7	19.2
2020	286 (100.0)	41 (14.4)	55 (19.1)	21 (7.5)	9.5	5.6	10.1	16.5
2021	293 (100.0)	53 (18.1)	56 (19.2)	23 (7.8)	8.7	5.8	9.6	15.0
2022	306 (100.0)	57 (18.7)	60 (19.4)	26 (8.6)	9.2	5.3	9.4	14.9
2023	361 (100.0)	79 (21.8)	68 (18.8)	33 (9.0)	8.5	6.1	9.8	15.9
2024	402 (100.0)	99 (24.6)	74 (18.4)	36 (8.9)	8.4	6.5	9.8	15.4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 원자료, 각 연도.

2) 인허가 자료상의 업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와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

- － 휴게음식점업은 전체 사업소 수 대비 폐업 사업소 수가 많은 업종으로, 폐업률이 15.4%에 달함.
- － 그 외 즉석음식(34.5%), 제과점(15.9%), 위탁급식(11.0%) 등 일부 음식 관련 업종에서도 폐업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통신판매업 폐업은 폐업 사업소 수가 많은 업력 구간에서 주로 늘고 있는 반면, 일반·휴게음식점업은 6개월 미만 신생 사업소의 폐업 증가가 두드러짐.

- － 통신판매업 사업소 폐업은 업력 1~3년 미만 구간에서 가장 많았으며, 전년 대비 폐업 증가도 해당 구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 － 일반음식점업 폐업 사업소 수는 업력이 긴 사업소에서 많았으나, 폐업 증가분은 6개월 미만 신생 사업소에 집중됨.
- － 휴게음식점업 업력별 폐업 분포는 고르게 나타났으나, 폐업 증가분은 일반음식점업과 마찬가지로 신생 사업소에서 주로 발생함.

〈표 2〉 주요 업종의 업력별 폐업 사업소 수 및 증감 분포(2024년)

(단위 : 천 개소, %)

	전 업종		통신판매업		일반음식점업		휴게음식점업	
	폐업 사업소 수	전년대비 증감	폐업 사업소 수	전년대비 증감	폐업 사업소 수	전년대비 증감	폐업 사업소 수	전년대비 증감
전 체	402 (100.0)	41 (100.0)	99 (100.0)	20 (100.0)	74 (100.0)	6 (100.0)	36 (100.0)	3 (100.0)
6개월 미만	81 (20.0)	8 (18.5)	13 (13.2)	2 (7.6)	12 (16.6)	3 (49.4)	9 (26.2)	2 (70.7)
6개월 이상 1년 미만	33 (8.2)	3 (7.8)	19 (18.7)	5 (23.6)	3 (4.4)	0 (-0.9)	2 (4.9)	0 (1.3)
1~3년 미만	118 (29.3)	10 (25.1)	41 (41.4)	7 (37.0)	16 (21.7)	0 (0.3)	9 (23.8)	0 (-14.1)
3~5년 미만	59 (14.6)	9 (23.1)	16 (15.8)	4 (21.9)	11 (14.6)	1 (14.0)	6 (15.7)	0 (-6.6)
5~10년 미만	57 (14.1)	6 (15.7)	8 (8.4)	2 (9.8)	13 (18.0)	1 (21.5)	7 (19.5)	1 (35.1)
10년 이상	56 (13.9)	4 (9.6)	2 (2.5)	0 (1.9)	18 (24.8)	1 (17.7)	3 (9.3)	1 (17.3)

주 : 괄호 안의 값은 업종 내 업력별 폐업 사업체 수 분포, 전년대비 증가분의 업력별 분포를 의미함.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 원자료, 각 연도.

○ 인허가 자료를 살펴본 결과, 폐업 사업소 수는 증가했으나 폐업률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며, 업종별로 폐업 양상에 차이가 나타났음.

- － 폐업 사업소 규모는 과거에 비해 증가했지만, 전체 운영 사업체 수도 함께 늘어난 만큼 폐업 사업소 수 증가가 폐업률 증가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임.
- － 업종별로 사업소 수가 가장 많은 통신판매업에서 폐업 사업소 규모도 컸으나, 다른 업종에 비해 이 업종 폐업률은 낮았음.
- － 반면, 일반음식점업, 휴게음식점업 등 음식 관련 업종은 폐업률이 타 업종에 비해 높았으며, 늘어나는 폐업이 주로 6개월 미만 신생 사업소에 집중됨. **KLI**

(김종욱,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